

전북자치도 -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

# 인체 관련 바이오분야 업무협약

### 국제 공동연구 사업 수행 등 바이오산업 성장 큰 기대 도내 대학·기관, 연구진들과 인재 및 기술 교류 가능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한 전북자치도가 미국 유명 연구센터와 인체 관련 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덕호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정병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황경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장 등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는 인간 질병과 정밀의학 응용 분야의 예측, 줄기세포 기반 체의 3D 기관형 모델 개발 및 검증

을 위한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연구기관이다. 협약은 △국제 공동연구사업 수행 협력 △연구 자료, 출판, 정보의 공유 △연구 인력 교류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력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 바이오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는 '글로벌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화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해외 오가노이드 기술 동향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전북자치도의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가 가진 바이오 연구기관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 간 국제 공동연구사업 수행과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에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에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며, "도내 대학, 기관이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5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덕호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미세생체조직시스템 연구센터장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 공모

### 인력양성·지역현안해결·외국인유학생 유치 등 64억원 규모 전주대서 대학·시군·공공기관 등 250여명 참여 설명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자율과제를 24일까지 공모에 나섰다. 2024년 전북자치도 RIS 자율과제는 △기업맞춤형 현장전문인력양성(전문대 트랙) △바이오특구, 반도체, 금융, 문화관광 등 지역산업발전 △고령화 사회, 여성문제, 환경 등 시·군 지역현안 해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에 총 64억원 규모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

이다. 시군과 대학만 참여가 가능했던 지난해와 달리 2024년 자율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전북출자출연기관까지 지·산·학·연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전북자치도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은 공모사업의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도내 12개 대학(전북대, 군

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교대)과 지역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한 14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해 도내 많은 기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의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인 420억원의 15%인 64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JB지산학협력단은 24일까지 과제 접

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월 1일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5월부터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에 RIS 자율과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자체-대학-산업체-연구소가 서로 연계해 우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도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준다

### 진안·무주·장수 초교 시작으로 본격 공급

전북자치도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재배된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을 선물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관내 30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379개 초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만 3,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기간이 만료, 이에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도내 379개 학교, 1만3,300여명 학생들에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며,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택배 활용 추가,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리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 공급된다. 전북자치도는 2월까지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학부모와 교사의 높아진 식품 안전·위생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기별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공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빵, 과자 등의 간식을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여 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도내 379개 학교, 1만3,300여명 학생들에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며,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택배 활용 추가,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등의 과정은 식품안전관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간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원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지며 산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다양한 산나물이 자라고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산림 내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

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입산물 불법채취, 입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점검이 용이한 산림인접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자경위,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심야 순찰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자율방범대와 협업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에 나선다. 자경위는 최근 새벽시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해 도민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 등 치안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범죄 예방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등을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야간·심야시간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지휘 2호인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는 △최근 신설된 기동순찰대 야간·심야시간대 순찰 강화 △범죄예방전담 토대로 취약시간 맞춤형 강력범죄 예방 치안대책 수립 등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 치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도 참여해 더욱 촘촘한 순찰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